제목: 21대 총선 국회의원 관련 공통 질문

문서 번호: 2020-5
수신: 바른미래당 정학국
참조: [블록처리]
발신: 뉴스파파(한국탐사저널릴리즘센터)

제 목: 21대 총선 국회의원 관련 공통 질문

귀 림의 발언을 기원합니다.

뉴스파파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21대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에 공통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11월 31일까지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뉴스파파 김세렬 피디 springrs@newatapa.org)

답변은 예 아니오 공센트 체크해주시고, 기타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있으시면 기각하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1대 국회의원의 보안 관련 주요 건수가 2년 2개월 만큼 날아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건주권자권용 범인이 날아나면서 처리능력에 어려움이 제대로 있는 범인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입법공해’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특정 수의 내실있는 범안 발의가 이뤄지도록 당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 예 ( ) 아니오 ( ) 기타

2. 방의 범안 건수가 늘어나면서 범인심사 소위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재량되는 범인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범안 자동 상정은 상임위가만 적용되고 있는데 범인심사소위도 범인이 자동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 기타
3. 20대 국회는 소위 '임하는 국회법을 동과시켜 발안심사 소위 월 2회 정례회의 페회 증 삼임위 개최를 명시하였지만 선거식 규정에 그쳐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음을 경우 의원 또는 정당에 벌칙(수당 등에 대한 페쇄)을 강제하는 방식의 국회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③ 기타 (의무화는 찬성이지만, 벌칙은 바라)

4. 국회는 상임위 소속에서 상정된 법안 등 안건에 대해 현행상 협의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도 없다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수의결정을 거쳐야 법안처리가 자연스럽지 않고 국회의 본미란 다수결에 의한 표결처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 ③ 기타 ()

5. 법사위의 체제구상권을 권한으로 인해 법안처리 지연과 '월권' 등 수십 년 동안 국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체제구상권을 폐지하거나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현행 제도를 바꾸는데 찬성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 ③ 기타 ()

6. 국회의원의 막말이나 불법행위는 국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윤리특위를 통해 다루도록 돼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한 번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결정한 적이 없어 당초 정기구가 아닌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법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윤리특위 회의록 공개 또는 독립적인 윤리심사의 구성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 ③ 기타 ()

7. 양국에서의 외부 독립기구에서 국회의원 수당 등 보수를 결정하고 의원 수당과 활동비 등을 두면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어야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 ③ 기타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